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는 재해석될 수 있는가?: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중심으로

박설희*

본 논문은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역사이며 현재 상황일 때, 장애라는 개념은 사회 구성원이 각자 장애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반영하며, 동시에 구성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저마다 장애에 대해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인식이 경험에 의존하는 한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재해석은 가능하다.

본 논문이 논거로 차용하고 있는 것은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이다. 상상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으로 인간의 일차적인 인식 방법에 해당한다. 상상과 변용은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1) 이미지의 관성, (2) 상상의 우연성, (3) 상상의 부분성을 상상의 양면성에 대한 세부 특성으로 보고, 이를 통해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과 그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이 이미 그리고 언제나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재해석은 구성원들이 겪는 장애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무수한 변용에서 시작될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의 재해석, 사회적 장애모델, 스피노자, 상상, 변용, 비장애중심주의

* 충북대학교 서양철학과 박사과정

I. 서론

2022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자아낸 두 장면은 우리 공동체가 비장애중심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주지시켰으며, 장애가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질문하게 했다. 나의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몇몇은 이런 인상을 공유할 것이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이 문장을 보고 누군가는 ‘자기 차가 없나 보군,’ 또는 ‘서울에 사나?’ 정도의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의 표어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출근길이라는 말에 걸린 장애인고용률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우선 지상에서 지하의 역사로 이동해서 지하철을 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호선으로 환승을 하는 것을 말하고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을 하는 것 또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 역에서나 내려서 화장실을 들르는 것, 깜박 졸아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다면 어디에서라도 반대 방향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음을 말한다.

이 모든 과정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거나, 시설이나 경로가 부재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서울 바닥을 거미줄처럼 지나가는 지하철은 장애인에게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토로하는 불편이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받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거론되는 데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쩌면 지난봄 우리가 가졌던 이동권에 관한 관심은 구체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날의 소동 정도로 잊혀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동권 문제가 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여름이 되어서는 ‘이상한변호사우영우’에 사람들이 열광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단어에 ‘우영우’를 떠올리며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이다. 이는 매체가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에 관해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보도해왔던 이전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람들은 ‘우영우변호사’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어떻게 김밥을 먹는지, 어떻게 친구와 인사하는지 등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제작자들과 연기자들의 고심한 듯한 만듦새에 감탄하면서, 마음 놓고 ‘우영우’를 사랑했다.¹⁾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인들에게

1) 이 드라마의 인기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이야기나 다 그럴겠지만, 이 드라마는 선택적으로 사실적이고 선택적으로 환상적이다. 하나의 이야기는 모든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현재까지의 논의의 빈칸은 미래의 구성원들이 고민해야 할 몫이다. 이처럼 이 드라마의 한계를 고민하려는 시도는 열

어떤 인상과 기대를 가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겠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인 중 극소수가 가지는 서번트 증후군을 함께 보이는 우영우 캐릭터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과잉대표하는 작금의 현상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인기가 해당 드라마의 세계관을 초월해 현실에 가닿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드라마에 관한 관심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함께 사는 장애인의 문제로 확장시키려는 심층 기사, 칼럼, 유튜브 영상 등이 속속 등장했고,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드라마에 대한 감상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움직임이 드라마의 유행을 타고 널리 확장되는 양상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반응은 다시 우영우라는 판타지로 환원되거나, 공허한 ‘힘내세요’만 그득하거나 하는 실정이었다. 드라마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벌써 시즌 2를 기다린다지만, 드라마에 담기지 못한 삶들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지하 주택에 살던 여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비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것도,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보호자가 자살한 것도 이번 여름,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을 야기한 원인으로서 위의 두 사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가를 드러낸다. 이동권 시위에서는 공감과 반감이 분분했지만, 우영우 세계관에는 기꺼이 열광하고 동요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사람들은 현실의 사태에는 중립적이기를 자처하고 가상의 캐릭터를 응원하는 것으로 현실의 장애인과의 연대를 대체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무관심 하고 심지어는 반감을 보이는 것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식과 정의가 장애인의 삶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비장애인의 이러저러한 생각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바를 반영한다. 특히 비장애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관점이 된 작금의 현실은 우리 공동체가 장애 정의를 공통의 상식으로 구축하는데 실패했음을, 그리고 개개인들이 자신의 기호와 편의를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공적인 비판을 제기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하나 마나 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비장애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재해석될 수 있을까?

UPIAS가 제시하고 마이클 올리버가 명시화한 사회적 장애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사회적 장벽의 구축을 통해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도들의 결과”²⁾이다.

광했던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려거나,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지면을 빌어 소개하고 싶은 글은 비마이너에 2022년 8월에 실린 안희재(「우영우가 침묵한 것」)의 글이다.

- 2) 해당 직접인용은 Colin Barnes, Michael Oliver and Len Barton. (2002)의 75쪽에 해당하며, 사회적 장애모델에 관한 서술들은 해당 책과 다음 책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김도현 (2009).

장애는 단순히 개인이 가진 손상에서 기인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인을 사회가 방치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해지는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재생산된다. 손상을 입은 개인이 배제되는 사태가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 장애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 논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장애는 과연 재해석 될 수 있는가?’이다. 장애는 시대와 공간, 상황에 따라 야속하고 교묘하게 재생산된다. 그런데 이 사회가 비장애중심적이라면, 장애라는 개념이 재해석될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역사를 반추할 때 장애는 재해석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변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장애 당사자의 투쟁의 결과일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의 과정 그 자체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인식은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렇다면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장애가 과연 재해석 될 수 있는가, 오히려 비장애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지 않는가? 재생산과 재해석은 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나 이대로는 안된다, 다른 세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장애의 재해석이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지는가?

본 논문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경험은 인식의 토대가 되고, (2) 그 인식의 결과 장애는 재생산되고 (3) 또한 같은 방식을 통해 장애는 재해석된다. 2장인 예비적 논의에서는 이 전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경험을 통한 인식이 장애를 재생산하거나 재해석하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의 전거로서, 본 논의는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경유할 것이다.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3장에서 다룰텐데, 『윤리학』³⁾에서 상상과 변용에 대한 진술을 인용하면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상상과 변용은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상상은 외부 사물에 의한 변용으로 촉발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경험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 개념은 고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상이 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이라는 특성을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세계를 왜곡되게 그리고 편향되게 이해하게 된다. 변용은 변용에 참여하는 대상의 본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인간 신체의 변용은 변용되는 신체 각각의 구성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이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 재해석될 수 있으며, 장애의 사회적 재해석은 사회 구성원들

3) 이후에서 본문 및 각주에서 『윤리학』을 인용할 경우, 다음의 기호를 사용할 것이다. E(『윤리학』), D(정의), A(공리), P(정리), dem(증명), S(주석), C(따름정리), App(부록), L(보조정리), Po(공준). 또한 『윤리학』의 국문본은 박기순(출간예정)을 인용했다.

사이의 경험과 경험에 의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경험에 의해 얻은 인식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II. 예비적 논의

본 장에서 규명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들의 경험을 통한 인식이 장애를 재 생산하거나 재해석한다는 본 논의의 전제가 사회적 장애모델의 이론적 지평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관점과 유사하고 또 다른가? 또한 스피노자의 철학은 장애학의 이론적 구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⁴⁾ (2)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본 논문의 중심 근거로 삼을 때, 스피노자의 인식론 전체에서 간과하게 되는 점이나, 미리 유념해야 하는 한계는 무엇인가?

1. 사회와 개인의 관계

본 논문의 본격적인 논증에 앞서, 우리는 먼저 본 논의의 구도가 야기할 수 있는 오해를 해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장애가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사회적 장애모델을 수용하면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들의 경험을 통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설정은 얼핏 보기에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장애가 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인식적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에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⁵⁾ 여기서 또 두 가지의 문제가 따라 나온다. 첫째, 장애의 구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장애의 재해석이 개인의 인식 수준에서 야기된다면, 장애의 구성과 장애의 재해석은 형식상 다른 것인가? 둘째, 장애의 구성과 장애의 재해석이 형식상 동일하다면, 장애의 재해석이 개인의 인식을 원인으로 삼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 역시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모두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 장애모델에 관한 몇몇 장애학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본 논문의 설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를 구별한다. 이는 장애를 구조적이

4) 해당 질문들은 다음 두 저작을 통해 제기 및 발전되었다. 김도현(2009), Priestley, M. (1998)

5) Priestley, M.(1998)는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구도는 이 점에서 Priestley, M.와 상충한다. 우리의 논의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장애를 구성하고 또 재해석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고 공적인 문제로 보기 위함이며, 장애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비장애중심적인 제도와 문화를 비판하는 장애인 권리 운동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장애모델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존해 장애가 결정되고, 의료기술을 통한 교정 및 재활로 추상적인 정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료적 모델과도 구분된다. 또한 장애가 사회적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장애 모델은 다른 소수자 운동과 정체성 정치와도 만난다. 장애가 사회적 배제와 동의어 관계라면, 이는 장애인은 배제된 자, 억압된 자, 즉 피지배 집단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모델은 사회를 바꾸려는 실천으로 연구자와 활동가를 이끈다. 장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면, 장애학과 장애 운동은 이를 마치 결정된 것처럼 여기는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가 강제한 장애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애 당사자는 제도와 문화 구성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치적 투쟁을 전개한다. 사회가 축조한 장애라는 장벽에 대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는 집단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의 비판과 저항이 장애의 의미를 탈바꿈하고 재해석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페미니즘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데, “젠더와 같이, 장애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구체적 현상이지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이 아니다.”(Shakespeare, 2006: 216) 한편, Priestley(1998)은 여성주의 장애학을 개인적 모델이자 관념론적 맥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는 여성주의가 사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환기시키고자 하고, 개인적 경험과 정체성을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하려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성주의나 포스트모던 이론이 사회적 장애모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비판적이다. “구조적 장벽barrier과 억압적 문화 표현은 그것이 장애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알려질 때만 적절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그러나 이것은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문제에 해당한다. 방해물들이 생성되는 방식과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장애인의 경험은 항상 장애물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일테지만, 그것은 그들의 경험 외부에 그런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Priestley, 1998: 85) 이처럼 Priestley는 인식의 영역과 존재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려한다.

Priestley의 우려는 타당하지만, 이런 우려만으로 인식론적 문제제기가 개인적 모델로 한정될 수는 없다. 인간의 경험을 통한 인식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은 세계를 부분으로만 이해하지만, 인식은 인간 정신 내부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작용이 아니다. 오히려 경험을 통한 인식은 외부 사물의 영향 아래 놓인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인식적 한계이자 인간 일반의 실존적 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오류를 인정하는 지점이 바로 스피노자의 상상이 가지는 특이점이다. 이런 오류를 포함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는 보편 관념, 언어, 일차적인 세계관을 구성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개념 역시 일차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인식을 개인적인 수준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곧 살펴보겠지만 스피노자는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인식하며, 인간이 다른 사물과 관계 맺으며-협력하거나 또는 충돌하거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인식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특히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룰 상상의 경우, 외부 사물과의 만남을 통해, 엄밀하게는 외부 사물에 의해 우리 신체가 변용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얻은 인식은 우리 신체 상태에 대한 인식이지만 외부 사물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인식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가 한 개인의 삶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배제되는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주장을 펼치며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장애는 정체성으로서 기능한다. “정체성은 그러므로 사회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연결하고, 공동체의 맥락에 그들 자신을 기입하는 개인적인 것들을 포함한다.”(Shakespeare, 1996: 99)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어진 인식을 중심으로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비극으로 보는 개인적 모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⁶⁾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장애는 장애 당사자의 삶에서 경험으로 재생산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기대하는 장애 개념을 반영하거나 그와 충돌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장애는 한 인간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의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가 추상화하는 장애라는 개념에 누락되는, 손상이 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삶이 존재하며, 손상이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다른 삶의 형태를 모두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⁷⁾

한편, 장애를 개인의 정체성으로 간주할 때, 장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이해는 다소 복잡한

6) Priestley(1998)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개인주의적-유물론적 입장은 손상된 신체를 분석의 단위로 보는데, 의료적 모델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여기서 장애의 원인은 사회구조, 문화가 아니라 신체의 손상이다. 둘째, 개인주의적-관념론적 입장은 개인의 인지적 상호작용과 감정적 경험에 집중한다. 여기서 장애는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자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절충안에 해당한다. 이 입장은 손상에 대한 장애인의 적응과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태도에 관해 주로 연구한다.

7)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손상의 영향과 사회적 장벽의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아주 어렵다.”(Shakespeare, 2006: 218) 본 문단의 내용은 사회적 장애모델에 지적된 한계들과도 상응한다.

맥락에 놓인다. 단순히 장애를 긍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정체성 논의와 달리,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가 제거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장애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억압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피지배 집단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비장애중심주의에서 억압받는 존재로서 장애인의 저항 담론과 장애 정체성을 토대로 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자기 긍정은 상충한다. 물론 사회적 장애모델은 영국의 장애인 권리 투쟁과 함께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들은 운동 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론의 영역에서 사회적 장애모델이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은 장애를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짓고 장애인의 삶을 소외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

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은 타인과 공동체,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에 독립되어 고려될 수 없다. 또한 그 경험과 인식은 정신과 신체에 모두 관계 맺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개인적인 상호 작용은 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조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사회는 비장애인을 과잉해서 대표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중심적이고, 장애인을 비가시화하면서 편협하고 고정된 방식으로만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비장애인의 인식과 경험 역시 비장애중심 사회의 맥락 아래 놓여 있으며, 이 사회의 구성이란 그 사회의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성요인으로 삼는다. 따라서 장애를 둘러싼 일상의 경험과 그 인식을 논의의 중심에 둘 때,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인식에 의해 구체화 된다. 사회적 구조나 제도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생성되고 지속되며, 문화나 상징들은 구성원들의 행위와 학습을 통해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사회가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수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나 문화를 결정하는, 구성원들과 무관한 사회라는 주체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적인 것들인 구조와 문화 그리고 사회의 구성물인 장애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은 부분적일 수 있고, 때문에 편견을 포함할 수도 있다. 개인들이 사회의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은 장애의 사회적 구성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같은 이유로 장애의 재해석은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선행연구에 소개된 스피노자의 개념들과 상상 논의의 함의

본 절에서는 우선 선행연구 격에 해당하는 각각의 국내 논의에서 제시되는 스피노자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를 본 연구의 주안점에 따라 재서술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범위를 스피노자의 철학 중 ‘인식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와 그 가운데도 1종 인식인 ‘상상’으로 한정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000년 이후로 국내외 장애학 연

구는 스피노자의 논의를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전근배(2021), 최현경과 강진숙(2022), 장정연(2018, 2021), 최진(2022)의 논문에서 스피노자가 논의 전개에 중심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전근배(2021)의 연구는 최근 장애인 정책 논의에서 회자되고 있는 ‘독립’과 ‘케어’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를 재해석한다. 스피노자 논의의 맥락에서 독립은 외부 세계와 독립된 인간, 우월한 능력을 이미 항상 확보한 인간의 지배력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로운 인간은 자의적으로 행위 하는 개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다른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 노력하는 인간을 말한다. 전근배(2021)의 연구는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코나투스’를 통해 현재 장애인 정책의 쟁점인 ‘탈시설’ 및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론과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코나투스’를 중심으로 ‘독립’ 개념의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전근배(2021)의 연구는 스피노자 철학을 장애학에 접목하는 후속 연구의 가능성 역시 시사한다.

코나투스(conatus)란 『윤리학』3부 정리 6과 7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E3P7)는 노력이자, “그 사물 자체의 현행적 본질”(E3P7)을 말한다.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생존을 무한적으로 지속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펼치고,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역시 포함한다. 이런 노력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취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이다. 각자는 이런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 외부 사물을 비롯한 타인과 관계 맺는다. 개인이 저마다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각자가 처한 실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타인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존재는 같은 인간이며,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두 함께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모두 함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것을 각자를 위해 추구하는 것”(E4P18S)이다. 그러나 많은 인간은 쉽게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과 외부 사물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부적합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각자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예측되게 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 스스로가 각자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 보존을 해치거나 타인의 존재 보존을 해롭게 하기도 한다.

‘코나투스’는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생존을 지속하려는 판단과 행위이자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와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인간의 행위와 사유의 근거에 해당한다. 이런 노력은 필연적으로 관계 맺기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관계 맺기란 무한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과의 관계 맺기, 나를 둘러싼 사물들, 자연, 환경과의 관계 맺기, 나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관계 맺기, 하나의 공동체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 맺기, 그리고 나의 의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개념들 또는 역사적 관습과의 관계 맺기 등이다.

스피노자의 사유는 이런 무수한 관계 맺기의 구성과 재구성을 존재론의 수준에서, 인간학의 수준에서, 그리고 정치철학의 수준에서 시도한다. 더욱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사유를 비롯한 인간의 정신작용과 각종 행위는 이러저러한 관념들, 경험들의 관계 맺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간은 왕국 속의 왕국에 존재하는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물과 함께 자연의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스피노자의 사유는 21세기에 이르러 로지 브라이도티나 브루노 라투르 등이 시도하는 탈인간중심주의(Posthumanism)적 기획에서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여타 17세기 철학이 가지는 시대적 한계-여성, 장애인 등을 배제하고 비장애 백인 성인 남성을 인간의 기본값으로 여기는 등-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⁸⁾

한편, 스피노자는 신을 시기와 질투 등 희노애락에 휩싸이는 인간처럼 여기고, 만물의 작동을 인간에게 보상과 처벌을 내리려는 신의 목적적인 행위의 귀결로 여기는, 인간의 일반적인 사유 경향성을 전적으로 비판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누군가의 의지와 목적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자연의 다른 부분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인과 작용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간은 사물과 현상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고, 자신이 유용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행위하고 판단한다.⁹⁾ 이것이 바로 미신과 편견이 생성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8) Abrams, T. (2017)는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개념의 의의와 들뢰즈가 해석하는 스피노자 철학을 비교 하면서 이 두 사상이 장애학과 조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Abrams는 스피노자의 민주주의에 관한 서술에서 여성의 본성을 근거로 삼아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대목을 근거로 과연 장애학이 스피노자의 논의를 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스피노자의 여성 배제 주장은 그 자체로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 논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김은주(2020)의 연구를 참고하라.

9) 해당 내용은 『윤리학』1부 부록에서 제시된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의지작용과 욕구를 의식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욕구하고 의지하도록 만든 원인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로서는 그것들을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는다. 둘째, 인간은 모든 것을 어떤 목적 때문에, 말하자면 자신이 욕구하는 유용한 것 때문에 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행해진 것들에 대해 항상 목적인만을 알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 듣게 되면 만족해한다. ... 그리고 이렇게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기질에 따라 타인의 기질을 판단하게 된다. ... 인간은 모든 자연물을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 수단을 자신이 발견하긴 했지만 자신이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용하도록 그 수단을 마련해준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갖

미신의 발생에 대한 설명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그 무지에서 따라 나오는 편협한 사유에 대한 이해에 적용될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개별 사물’은 상이한 본성을 가진 여러 사물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산출해 낼 때, 이 사물들이 부분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이 관계 자체를 말한다.¹⁰⁾ 이런 의미에서 인간, 고양이, 노트북 등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물론, 인간들이 구성하는 여러 공동체들—예를 들어 가족, 부모, 연인, 국가, 돌봄 관계 등—역시 개별 사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논의에서 개별 사물은 곧 구성된 관계를 말하며, 이는 피부로 온전히 마감되어 다른 사물과 분리되고 접촉하는 인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사물이란 모두 부분으로 참여하는 어떤 사물들의 구성이자, 다른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사물의 존재는 자연히 다른 사물들의 존재를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에게 인간의 실존은 그 실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부분으로 참여하는 다른 사물과 타인들을 상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렇게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인간이 다른 관계에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는 개별 사물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재현되고 재생산되는 장애에 대한 편향적인 개념들, 장애 당사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기의식 등도 역시 하나의 개별 사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편견 역시 하나의 관계이자 존재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경험들은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공동체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겹쳐져 하나의 개념을 구성한다. 여러 관념과 경험들이 부분으로 참여해 하나의 편향된 개념을 구성하며, 이 편견은 부분이 되는 경험들의 연관이 해체되면 그 수명을 다할 것이다. 또는, 편견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관념과 경험으로 교체된다면 어떤 편견은 재해석될 수 있다.

둘째로, 최현경과 강진숙(2022)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촬영하는 장애 당사자 크리에이터와의 인터뷰 및 참여 관찰을 통해 ‘정동 체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주류 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대상화되던 장애인 이미지가 장애 당사자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당사자들의 영상 제작 활동,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에 주목한다. 최현경

게 된다. ...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고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모든 것을 행한, 인간과 같은 자유를 지닌 어떤 자연의 통치자 또는 통치자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 그래서 그는 신들이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간을 자신들에게 묶어두고 그 인간으로부터 최고의 경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 이렇게 이 편견은 미신으로 바뀌었고 ... 각자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모든 사물의 목적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10) 해당 내용은 『윤리학』2부 정의7에서 제시된다. “나는 개별 사물을 유한하고 제한된 실존을 갖는 사물로 이해한다. 그리고 여러 개체가 한 행위에서 협력하여 모든 개체가 동시에 한 결과의 원인이 될 경우, 바로 그런 한에서 나는 그 모든 개체를 하나의 개별 사물로 간주한다.”

과 강진숙(2022)의 연구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정동 체험(최현경과 강진숙, 2022: 78)”이 어떤 식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쁨 또는 슬픔을 야기하는지, 나아가 이들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실천이 기존의 통념과 상식(편견)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들의 연구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경험을 연구한다는 점 자체로도 충분한 시의성을 지닌다. 또한 이들의 경험은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과 표현을 주고받는 점에서 정치적인 인데, 최현경과 강진숙(2022)의 연구는 이들의 사적이자 공적인 경험을 학문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연구에서 주제화되는 ‘정동’ 개념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 그리고 브라이언 마수미 등이 해석한 스피노자 ‘변용’ 개념을 말한다. 들뢰즈, 가타리와 마수미의 논의는 국내 문학 및 사회학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많은 정동 연구의 이론적인 뿌리로서 역할 하고 있다. 그러나 들뢰즈, 가타리, 마수미 등의 스피노자 해석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변용(정동)’ 논의를 직접 전개할 수 있으며, 스피노자의 변용 연구가 위의 ‘정동이론’으로 모두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¹¹⁾ 본 연구는 다른 해석자나 학파의 관점을 경유하기보다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변용’과 변용을 통한 인식에 해당하는 ‘상상’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셋째로, 장정연(2018, 2021)의 연구는 스피노자의 정서와 이성 개념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변용을 검토하고 있다. “스피노자의 실천철학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장정연, 2021: 122)라는 질문을 연구의 바탕에 두고, 실제 국내의 한 센터에서 이루어진- “정신장애인들이 동물매개활동에 참여”(장정연, 2021: 123)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4년 동안의 활동- 사례를 스피노자의 논의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실제 경험사례를 스피노자 사유에서 전개되는 개념들의 지평에 위치 지우고자 하는 시도는 본 연구가 목표하는바-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경험적인 현상들을 스피노자의 논의에 적용하기-와 맞닿아 있다. 장정연(2021)의 연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들의 자기 기술을 스피노자의 『윤리학』 4부 정리들로 재구성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서와 이성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로서 겪게 되는 욕망적 삶과 다르지 않”(장정연, 2021: 152)으며, 정신장애인은 “수동적인 정서와 능동적인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 자신의 삶과 대결”(장정연, 2021: 152)하면서, 스스로가 처한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11) 스피노자의 ‘변용’ 개념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정동’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본 논의의 범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를 본 논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부족한 역량에서 비롯한 것이며, 국내의 ‘정동이론’ 수용과 스피노자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겨놓고자 한다.

장정연(2021)의 연구는 감정과 이성이 정신장애인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특히 스피노자의 감정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변용을 연구의 중심 개념에 두었음에도 변용을 통해 얻은 인식에 해당하는 '상상'을 주로 다루지는 않았다. 우리의 연구가 스피노자 철학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경험이 개인의 행위 및 실존 역량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세계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서 대수롭지 않게 스며들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비장애중심주의적 시선은 장애 당사자들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외부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런 외부 원인들이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장정연(2021)의 연구가 정신장애인들의 삶에 관한 기술 자체로 확인하였다면, 비장애중심주의 공동체에서 마치 합의된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편견에 대한 재구성, 즉 재해석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 역시 스피노자 철학이 시도해야 하는 주제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장정연(2018)의 연구는 스피노자의 『윤리학』 3부의 진행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때 언급하고 있는 정서 산출 원인의 특성은 '우연성, 유사성, 시간성, 타자 의존성, 정서모방'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가 '우연적인 인접성에 의한 연합'으로 산출"(장정연, 2018: 185)된다는 점은 우리의 연구의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경험을 통한 인식'의 우연성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장정연(2018)의 연구가 스피노자의 정서론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원인으로서의 유사성'- "어떤 실재가 보통 정신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변용하는 대상과 유사하다고 '우리가 상상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장정연, 2018: 188)-은 앞으로 진행할 우리의 연구에서 하나의 논점이 된다.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비롯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많은 편견은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어떤 내재적인 필연성도 가지지 않으며, 특정 경험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고, 그 사례들이 단지 많다는 이유로 어떤 의심 없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불어난 눈덩이에 불과하다.

장정연(2018)은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상상"(장정연, 2018: 189)을 통해 기쁨, 사랑, 애호 등의 감정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촉발된 사례들에 주목한다. 이는 감정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이 무차별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이 강렬한 실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인상이 갑자기 긍정적인 것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같은 논리를 근거로 비장애중심사회가 무심코 재생산하는 여타의 인상과 경험을 근거로 하는 인식들이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역량 변화의 계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인식의 차원에서, 개인의 자기 인식과 세계 이해와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경로를 좇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변용과 변용을 통한 인식의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행연구는 최진(2022)의 것이다. 최진(2022)의 연구는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대한 정당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의 권한 행사를 지원하거나 독려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나 제도가 미비한 탓에 결과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진(2022)의 연구는 『윤리학』의 개체 개념에서 상호의존성을 도출한다는 지점에서 우리의 연구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피노자에게 “개체는 개인과 같이 분절되고 독립된 ‘실체’로서 이해되지 않”(최진, 2022: 176)기 때문에, 앞선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피노자에게 인간은 특정한 능력에 근거해 자격을 얻고 그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존재를 이해하는 스피노자 연구의 특이성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변화해야만 하는 당위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3. 스피노자의 철학적 태도와 본 연구의 한계

우리의 연구가 스피노자의 논의를 통해 비장애중심사회를 비난하고 당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적 태도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정치론』 서문에서 기존의 철학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특정한 양상을 결점으로 여기고 비웃거나 비난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인간의 감정은 결점이 아니라 본성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연구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스피노자의 철학적 태도를 따르고자 한다.

비난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이나 비장애중심주의가 얼마나 비장애인들에게 손해인지를 설명하면서 장애인에 관한 관심-심지어는 동정-을 호소하는 전략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명확하며, 또 다른 장애 개념을 재생산할 위험이 다분하다. 이미 비장애중심주의적 사회 속에 이미 항상 살아온 비장애인들은 이제까지 각자가 경험한 바에 따라 세계를 판단하며, 기존의 비장애중심적 사회에 구성된 장애 개념이 재생산되고 있다. 비장애인의 편향된 사유와 비장애중심적 사회의 한계는 비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이 장애를 재생산하고 지속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때의 이해란 정당화가 아니라 그 발생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재해석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의미하는 장애 개념이 어떻게 지속되고 재생산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한 사물의 지속과 재생산의 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은 바로 그것의 해체와 재해석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에 관한 연구는 장애 당사자, 장애인 가족과 돌봄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불특정한 비장애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 즉 인간 일반을 고려

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를 재생산하는 행위자이자 재해석 할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과 행위를 근본적으로 구별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일단 서로에 대해 차별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은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실존하고 있음, 타인과 관계 맺고 있음,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함과 같은 상황 자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두가 공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인들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말이다.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서로가 이미 그리고 항상 맺고 있는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서로를 무관한 존재처럼 여기고 서로에게 소외받기 쉽다. 여전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한 인식이 빚어내는 오해와 거짓된 관념들의 재생산 구조이며, 이런 인식은 비장애인이냐 장애인이냐 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작동 기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이 보이는 특성 말이다.

다른 한편, 이런 논의에서 본 연구가 경계해야 하는 점은 회의주의적 태도이다. 우리 사회의 비장애중심주의와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편견이 우리 경험의 역사가 빚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실현한다 말인가? 혹은 허무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가 변화 가능성, 다시 말해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보하는 근거 역시 결과적으로는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이다. 결국 우리를 자극하고 변화하게 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경험이다. 비장애중심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특정한 장애 개념을 재생산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에 균열을 가하고 장애를 재해석하는 것 역시 경험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 운동이 비장애인의 좋은 경험을 위해 톤폴리싱-좋은 말로, 친절하게 말하기를 요구하는 백래시,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편견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기 위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하라거나 비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해서 권리주장을 펼치고, 비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 친절하게 설명하라는 등-을 권한다고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모든 경험이 항상 장애의 재해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상상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과 주장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지할 테고 혐오할 것이다. 본 연구가 백전백승의 장애 운동을 위한 모책과 비장애중심주의 혁파를 위한 정답을 선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험이 인간의 일차적인 인상 및 인식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무자비한 민낯을 직시하고 다르게 살기를 상상하고 다르게 관계 맺기를 구상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피노자의 인식론-특히, 상상 개념-을 주제화하여 장애학을 전개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이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의 지속과 변화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역으로 사회-정치적 경험에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본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는 개인들의 경험을 통한 인식의 특성들의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경험의 양면성 분석은 인간 인식의 근본 조건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마지막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본 논의의 범위는 스피노자의 인식론의 ‘부분’을 다룬다는 점이다. 스피노자에게 인식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 (1) “무작위적 경험에 의한 인식”(E2P40S)과 기억, 회상을 통한 관념의 형성을 1종 인식인 상상, (2) “공통관념들과 사물들의 성질들에 대한 적합한 관념”들을 토대로 한 인식을 2종 인식인 이성, (3) “사물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인 3종 인식인 직관지. 이 가운데 본 연구는 1종 인식인 상상만을 주제로 한다.

2종, 3종 인식과는 달리 1종 인식인 상상은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신과 편견은 모두 상상에서 비롯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적합한 인식을 통해 인간이 감정의 예측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말한다. 이때 스피노자는 1종 인식과 2, 3종 인식을 다소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제3종의 인식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정신의 최고의 만족이 생겨난다.”(E5P27) “사물을 제3종의 인식으로 인식하려는 노력 혹은 욕망은 제1종인식이 아니라 확실히 제2종의 인식에서 생겨날 수 있다”(E5P28) “정신이 제2종과 제3종 인식으로 더 많은 사물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정신은 그만큼 덜 나쁜 감정들을 겪게 되고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E5P38)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 앞서 우리는 상상이 스피노자 인식론은 물론 철학 체계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은 인간이 일차적으로 세계와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근거가 되며, 감정의 발생과 변화도 상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상상은 자신과 외부 사물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오류의 원인이 되지만 인간은 상상을 거치지 않고서는 세계의 실존에 대한 지각을 얻을 수 없다. 상상은 인간 정신이 자기 자신과 외부 사물의 실존을 지각하는 유일한 방법에 해당한다. “정신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E2P23) “인간 정신은 오직 자기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만 외부 물체를 실제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한다.”(E2P26) 따라서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정신은 자기 자신, 외부 사물, 그리고 세계의 실존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상상은 일차적인 사유의 재료를 획득하는 유일한 경로가 된다. 그것이 부적합한 관념들을 양산한다고 해도 말이다. 상

상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 조건이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부적합한 관념을 구성하는 사태의 기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른 삶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재생산과 비장애중심적사회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연구는 상상에서 시작한다.

III. 상상의 양면성

1. 이미지의 관성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사건의 관찰자-또는 방관자-로 자리하면서, 또는 타인의 주장을 타당하고 여기고 수용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기준을 세운다. 또한 사회가 제시하는 법과 제도를 따르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통용되는 상식을 습득한다. 대부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통념들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인 것들이다. 이렇게 한번 학습된 통념들에 동의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계속 그 견해를 고수하려 한다. 이렇듯 관념이나 우리의 관점은 마치 자연 사물처럼 관성을 가지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은연중에 학습된 장애에 대한 편견은 쉽게 제거되거나 교정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되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앞선 우리의 문제의식에 따라 재서술하자면, 장애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유지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의 재생산 과정은 단순히 편견의 재생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사물들에 대한 인식 일반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는 상상을 통한 이미지의 형성 과정과 그 이미지가 가지는 관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관성은 장애가 재생산되는 과정뿐 아니라 장애가 재해석 되는 과정에도 관여한다.

스피노자에게 사물의 이미지는 “인간 신체의 변용”(E2P17CS)이다. 스피노자는 “그리고 정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신체를 사유할 때, 우리는 정신이 상상한다고”(같은 곳)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 신체는 외부사물에 의해 변용을 겪으며, 이 변용을 통해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에 대한 사유를 상상이라 부른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가 주목하는 경험에 대한 사유는 스피노자에게 상상으로 정의된다.¹²⁾ 그렇다면 본 절에서 우선 규명해야 할 개념

12) 스피노자는 『윤리학』 2부 정리 40 주석 2에서 다음과 같이 상상을 정의한다. “1. 지성에게는 단편적이

은 ‘변용’¹³⁾에 해당할 것이다. 사물의 이미지는 바로 우리 신체가 외부사물에 의해 변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물체가 많은 방식으로 변용됨을 느낀다.”(E2A4) 이 서술은 연장, 즉 물질의 차원에서 우리 신체의 작용을 말한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신체가 겪은 경험은 정신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이 사유와 연장 각각을 실체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관념들의 질서 및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 및 연관과 동일하다.”(E2P7)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한 지배관계나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정신과 신체, 사유와 물질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철학자들마다의 주요한 과제였으며, 스피노자의 동시대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정신이 신체가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에게 관념은 그 특성상 항상 대상을 가지는 ‘무엇에 대한 관념’이며, 상상의 경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라고 말하지만, 관념의 원인은 다른 관념이고 신체의 원인은 다른 사물이라고 말한다.¹⁴⁾ 서로 다른 속성의 양태에 해당하는 정신과 신체는 서로 같은 것을 표현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신이 우리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신을 이루는 관념들은 신체적 경험에 상응한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E2P13)이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들의 실존을 인식한다.¹⁵⁾ 이제까지 우리는 신체가 겪는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

고 혼동되며 무질서한 방식으로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재현되는 개별자들로부터 (2부의 정리 29 따름정리를 보라).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러한 지각을 무작위적 경험에 의한 인식으로 부르곤 했다. 2. 기호들로부터,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을 듣거나 읽으면서 사물들을 기억하고, 그 사물들에 대해 우리가 사물들을 상상할 때 갖는 관념들과 유사한 어떤 관념들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2부 정리 18의 주석을 보라). 사물들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후에 나는 제1종의 인식, 역측 혹은 상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본 정의와 상상 개념과 둘러싼 『윤리학』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거나 변화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스피노자의 철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변용의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의는 변용이 인간의 경험과 사유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변용은 스피노자의 존재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피노자 철학 체계에서 실체-존재와 사유를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인 신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 초월적이거나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무한에서 유한한 것이 직접적으로 유출되지도 않는다. 스피노자가 이 사이에서 낸 제3의 길은 바로 변용이다. “개별사물들은 신의 속성들의 변용들, 달리 말해 신의 속성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들”(E1P25C)이다. 스피노자에게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양태로 정의된다. 양태는 존재하거나 사유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을 원인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때 다른 사물이란 다른 존재하는 양태를 말한다. 유한한 사물의 실존과 사유의 작동에 있어서 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변용된 것’으로 관여한다.

14) “...사물들이 사유 양태로서 고려되는 한에서 우리는 자연 전체의 질서 혹은 원인들의 연관을 오직 사유 속성에 의해서 설명해야만 하며, 사물들이 연장의 양태로 고려되는 한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연 전체의 질서를 오직 연장 속성에 의해 설명해야 한다.”(E2P7S)

15) “인간 정신은 신체가 겪는 변용들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면 인간 신체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는 스피노자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신체의 변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지속 및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신체의 작동은 모든 물체와 동일한 운동법칙을 따른다. 모든 물체는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있다.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 있는 이 상태는 다른 사물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¹⁶⁾ 한 물체의 운동상태는 어떤 물체가 가한 충격을 통해 결정된다. 또한 현재의 운동상태는 다른 물체에 의해 야기된 충격이 없는 한 지속된다. 인간의 신체는 자신의 지속을 위해 많은 다른 물체들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그 자체도 역시 많은 개체들로 구성된다.¹⁷⁾ 여기서 말하는 개체란 운동상태가 같거나 다른, 서로 다른 물체들이 하나의 관계를 구성하면서 서로의 운동을 전달하는 상태일 때, 이때 유지되는 관계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인간 신체를 포함한 모든 사물은-심지어는 인간 정신마저도-여러 사물이 부분으로 참여하면서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성체에 해당한다.

개체와 신체에 대한 논의를 인간 정신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관념들이 특정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인간 각각의 정신은 이런 관념들의 구성체에 해당한다. 인간 정신 역시 그 보존을 위해 다른 많은 관념들을 필요로 한다. 스피노자에게는 특히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역시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주체라거나 관념을 담고 있는 용기와 같은 의미의 정신 개념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이라는 사물은 관념들의 특정한 연관에 해당한다.

단순한 물체에서 관성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계속 운동을 유지하는 것,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정지를 지속하는 것이라면, 여러 물체들로 구성된 개체에 있어 관성 개념이란 무엇일까?¹⁸⁾ 부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물체들이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관계-즉, 개체=가 유지되는 한, 그 개

실존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E2P19) “정신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E2P23) “정신은 오직 자기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만 외부 물체를 실제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한다.”(E2P26)

- 16)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다른 물체 또한 또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후자도 다시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E2P13L3)
- 17) “보존되기 위해서 인간 신체는 이를테면 자신을 계속 재생해 주는 아주 많은 다른 물체를 필요로 한다.”(E2P13Po5) “인간 신체는 구성도가 높은 (상이한 본성의) 아주 많은 개체들로 구성된다”(E2P13Po1)
- 18) 본 절에서 지금까지 인용하고 있는 논의는 『윤리학』 2부 정리 13과 14 사이에 제시되는 공리, 정의, 보조정리, 공준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부분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명 「자연학 소론」이라고 불리는 대목이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가장 단순한 물체, 즉 서로 다른 본성의 여러 물체들로 구성되지 않은 가상적인 물체-실존하는 모든 물체는 구성된 것이므로, 이는 가상적이다-의 경우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해당 특성을 구성된 물체인 개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체는 계속 그 본성을 유지하게 된다. 부분으로 참여하는 물체들이 교체되거나 그 수가 변하거나, 운동의 방향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자신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해당한다.¹⁹⁾

관성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성향일 때, 이미지의 관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신체의 변용을 통해 구성된 이미지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 나아가 변화 할만한 상황에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장애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때, 다시 말해 한 인간이 경험-신체의 변용-을 통해, 비장애중심적인 관점의 장애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때²⁰⁾, 이 이미지 자체가 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비장애중심적인 장애라는 이미지가 개인들 각 자에게 한번 학습되고 나서,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때, 나아가 그것이 더욱 확고해지고 다른 부정적 관념이나 감정들과 연관을 맺을 때, 장애는 재생산된다.

이미지의 관성은 특히 상상에서 강화될 수 있는데, 변용을 통해 형성된 외부 사물에 대한 이미지와 그에 대한 관념은 그 사물의 실제 존재 상태와 무관하게 지속된다. 그 사물의 실존을 배제하는 다른 변용을 겪을 때까지 해당 이미지는 지속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 현존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일”(E2P17S) 일어나는 것이다. 신체의 변용을 통해 어떤 외부 물체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이미 획득했을 때, 우리는 그 개념이 기각되는 또 다른 변용을 겪기 전까지 그 개념이 실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상상이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상상이 모두 오류를 양산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류를 범하는 것은 상상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현존하는 것처럼 상상되는 사물의 실존을 배제하는 관념이 정신 안에 부재”(E2P17S)할 때에만 그렇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태의 전체적인 이해, 어떤 개념의 기각가능성, 그때는 맞는 것일지라도 지금은 틀리다는 것을, 또는 그 역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만 상상은 오류를 범한다. 스피노자는 실존하지 않는 사물을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존한다고 여길 수 있는 상상은 “본성의 결합이 아니라 탁월함으로 간주”(같은 곳)한다.

자신이 실존한다고 여기는 어떤 경험에 대한 관념이, 따라서 옳다고 여기는 판단이 특정한 조

19) 자연학 소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관성 개념은 17세기 자연철학의 성과에 대한 단순한 수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운동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본성에 대한 유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물체의 관성은 우리가 2장에서 선행연구를 소개하면서 언급했던 ‘코나투스’로 연결된다. 모든 물체가 자기 존재 안에 머무려는 노력이자 외부사물에 대항해 또는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본성을 펼치려는 노력인 코나투스는 자신의 운동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확대된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 이어지는 3절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은 변용의 원인인 물체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포함한다.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들에 의해 변용을 겪는 방식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게 되어 있다.”(E2P16) 따라서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장애라는 이미지는 경험하는 신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신체가 겪은 사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건에서 한정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조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분적 귀결에 해당하는 어떤 사태에 대한 개념은 부분적인 인식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은 거짓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개념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의 구성에 관여하는 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한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이며 따라서 틀린 것이다. 또한 특정한 경험을 통해 장애란 무엇이라고 인식할 때, 그런 이해가 이미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고, 더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런 이해의 실존을 배제하는 관념을 함께 가지지 못할 때, 이를 근거로 한 장애에 대한 인식은 오류에 해당한다. 물론 그것이 오류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런 내용의 장애는 유지되고 재생산되었지만 말이다.

게다가 관념인 한에서나 물체인 한에서나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1) “원인이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경우”²¹⁾ (2) “필연적이라고 상상하는 사물”(E4P11) (3) “그 사물이 현재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경우”(E4P12C) 이 경우들에서 어떤 대상이 다른 사물의 참된 원인인지, 그리고 원인으로 여기는 사물이 실제로 실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필연적인지, 현재 우리에게 실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런 사태를 야기하는 근거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한다는 것이 그 변용과 그 변용에 대한 관념, 즉 그 감정을 강하게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감정, 신체의 변용, 그에 대한 관념 그리고 사물 일반에 대하여 다른 외부 원인에 의해 쉽게 파괴되거나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구성한 변용은 “더 강한 변용에 의해 그 신체를 변용시키는 (2부 정리 6에 의해) 물체적인 원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억제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E4P7dem) 어떤 관념이든 사물이든 외부사물로 구성된 환경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비장애중심적 사회에서 구성된 장애 개념의 원인을 확신하면서 그것이 실재한다고 여기고, 그러한 장애는 필연적이며, 우리의 삶에 이런 장애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긴다면, 이런 장애 개념은 재생산을 거듭할 뿐 재해석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절에서 우리가 관성을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독해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해석이다. 한 사물의 운동상태와 한 신체의 변용은 고정불변한 것도, 본유적인 것도, 영원한

21) 이는 감정을 주제로 하는 『윤리학』 4부 정리9에 근거한 내용이다. “감정은, 우리가 그 원인이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경우, 그 원인이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상상하는 경우보다 더 강하다.” 또한 다른 조건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정리 역시 4부의 감정을 다루는 서술에 해당한다. 감정은 감정을 겪는 존재의 역량을 변화시키는 신체의 변용들이자 그에 대한 관념들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관한 논의 역시 상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정리에 따르면 원인의 현존을 상상하는 경우, 그 결과에 해당하는 변용에 대한 관념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그것은 외부사물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특정한 상태의 유지는 이를 대체하는 또는 부정하는 변용을 겪기 전까지만 유지된다. 관성이라는 개념은 물체의 지속을 설명하는 동시에 외부 원인에 의한 결정을 함의한다. 그 물체는 자의적인 의지나 초월적인 것의 개입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외부 원인, 즉 동일한 지위의 다른 물체에 의해 파괴되거나 변화할 가능성을 보장한다.

또한 상상이 오류의 원인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 신체의 근본적인 조건을 바꾼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은 외부 물체들에 의해 아주 많은 방식으로 변용을 겪으며, 그에 따라 인간 신체 자체도 아주 많은 방식으로 변용을 겪는다.”(E2P13Po3) 그리고 정신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므로 “아주 많은 것을 지각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은 그것의 신체가 보다 많은 방식으로 배치될수록 그만큼 더 커진다.”(E2P14)

따라서 장애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재생산되지만,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외부적 조건이 기존의 인식을 기각하지 않는 한, 또한 기존의 인식을 참으로 여기고 이를 부정하는 다른 인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한, 사회적 배제로서의 장애 개념은 관성을 가지며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될 것이다. 장애라는 개념이 개인의 내부적 또는 본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학습된 것인 한에서, 신체를 다르게 변용시키는 또 다른 경험에 의해 장애는 재해석될 것이다. 장애에 대한 재생산과 재해석은 모두 경험에 의해, 일차적으로 우리 신체의 변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의 재생산이 재해석으로 가는 통과외레라고 말할 수 없으며, 장애의 재해석에 대한 가능성이 절멸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장애의 재생산과 재해석 사이의 긴장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경험을 통한 인식이 발생을 중심으로 그 양면성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경험을 통한 인식에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 연관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연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상상의 우연성에 대한 검토는 장애에 대한 흔한 편견들이 어떤 정합성도 갖추지 못함을 드러낼 것이다.

2. 상상의 우연성²²⁾

상상, 즉 경험을 통한 인식은 우리가 관념을 획득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경험에서 배운 바에 따라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곤 한다. 그런데 이런 인식 내용은 사실상 두 가지 차원에서 우연히 형성된 것이다. (1) 경험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2) 경험을 통한 인식에서 발생하는 관념들 사이의 연관이 우연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험을 통한 인식이 참된 인식이라는 점이 보증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경험을 통한 인식은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 이해에 대한 근거로 작동하곤 하지만, 이런 인식들이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의 판단에 대해 스스로 행하는 검토와 반성은 장애의 재해석의 적극적인 실천이 될 것이다.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변용을 겪는 우리 신체와 정신에 연관된 과정이므로 각자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이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의 무차별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겪을지, 또는 겪지 않을지를 취사선택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논의가 전제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가지는 비장애중심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경험이 비장애중심적인 경향을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환경적 특성 또는 경향성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개인이 마주하는 경험 모두를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공동체의 편향성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일지라도, 그리고 개인들의 판단이 가지는 편향성이 경험을 통해 구성된 것일지라도, 인식의 질서-이 인식이 상상인 한에서-와 자연의 질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별은 기억에 관한 규정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기억은 인간 신체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는 관념들의 특정한 연쇄에 다름 아니며, 이 연쇄는 인간 신체의 변용들의 질서 및 연쇄에 따라 정신 속에서 형성된다.”(E2P18S) 이 연쇄는 -이어지는 3절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변용되는 신체의 구성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변용되는 인간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엄밀하게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바와 변용에 근거해 인식한 사물에 관한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²³⁾

22) 논의에 앞서 스피노자 철학에서 우연에 대한 의미를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1부 전체를 할애하면서 자신의 존재론을 증명하고 펼친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신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내재적 원인이며, 모든 자연 사물들은 신의 속성에 대한 특정한 표현으로서,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된다.”(E1P29) 따라서 스피노자의 세계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연은 “우리 인식의 결여”(E1P33S1)를 말할 뿐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는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절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식이 세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인식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따라서 왜곡된 인식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상상에 대한 인식이 무엇에 대한 부분적 인식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물들의 질서와 원인들의 연관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실제적이기보다는 상상적이다.”(E4P62S) 세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특히 경험을 근거로 할 경우, 부분적이고 혼동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는 노력,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 보존을 지속하려는 노력-코나투스-으로서 행위하고 판단한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해롭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나아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한 판단에 근거한다. 이런 판단은 앞 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인식을 기초로 한다.²⁴⁾

그러나 경험을 경유한 우리의 인식이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즉 편견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를 경험 자체에 물을 수는 없다. 우리가 편견에 의지해 이러저러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험은 매일같이 반박”(E1App)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적합한 인식과 상충하는 경험에 우리는 이미 그리고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경험의 무차별성은 우리가 옳다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통념들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계기로 나타난다. 물론 그런 경험들에 관해 우리가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또다시 곡해하는 식의 확증편향에 빠질 수도 있지만 말이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 A에 대한 관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곡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 정신이 구성하고 있는 관념들의 특정한 연관과 질서에 근거해 경험 A에 대한 관념이 기존에 관념을 기각하는 원인으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험 A에 대한 관념이 이 경험을 겪은 인간의 존재 보존 노력-코나투스-에 해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겨진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경험 A에 대한 관념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이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적합한 인식을 근거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은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을 때나 혼동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을 때나 무한정한 지속 속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자신의 코나투스를 의식한다.”(E3P9)

이제 상상의 내용이 어떻게 우연적인지를 살펴보자. 스피노자에게 인식은 관념들이 서로 연관

23) 다만 이 논의는 1종 인식인 상상에 한정해서만 유효하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스피노자의 인식론에는 2종 인식인 이성과 3종 인식인 직관 역시 인간의 인식을 구성한다. 이성은 사물들을 “참되게, ...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각한다.”(E2P44C2dem) 이는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종 인식 역시 사물들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일상적인 인식의 재료인 경험에 대한 주목과 경험을 통한 인식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하기에, 스피노자의 인식론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셈이다.

24) “정신은 다른 원인에 의해 다른 것을 사유하도록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물에 대한 고려에 붙잡혀 있게 될 것이다.” 해당 구절은 『윤리학』 3부 감정들에 대한 정리 4번인 경이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의 작용 역시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들의 연관관계에 편입되거나 기존의 어떤 관념을 대체하거나 연관되는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일련의 상태를 우리는 상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절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상상의 우연성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은 상상을 통해 한 인간의 정신에 구성되는 관념들 사이의 연관이 바로 우연적이라는 것이다.

여러 물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과 다른 물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가 동시에 둘 혹은 여러 물체들에 의해 한번 변용을 겪은 경우”(E2P18)에 서로 연관된다. 여기서 어떤 둘 혹은 여러 관념들이 연관된 이유는 이들이 동시에 한 신체에 변용되었기 때문이다. 신체의 변용을 통해 연관된 관념들 사이의 연관은 어떤 인과성이나 필연적인 이유 없이도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작용인 상상에 기대고 있는 우리의 인식과 판단은 사실상 우연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각자의 경험, 우리 공동체가 역사로 수용하고 있는 이전 시대의 경험, 이것들이 그 자체로 특정 개념을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는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또한 어떤 대상에 감정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각 사물은 우연에 의해 기쁨, 슬픔 또는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E3P15)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그 사물이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사물을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바라본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E3P15C) 특정 사물에 대한 관념이 기쁨이나 슬픔과 연관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모든 감정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물에 대해 가지는 감정-또는 인상 등-은 우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다른 이유로 기쁘거나 슬플 때, 사물 A를 바라본다면, 이 사물 A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했다고 여길 수 있다. 어떤 사물이 나의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코나투스(나를 위한 유용성의 규칙에서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사물이 나에게 이롭다면 나는 이 사물을 더 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 사물과 관계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사물이 나에게 해롭다면 나는 이 사물을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일련의 행위와 판단의 전제는 관념과 감정의 우연한 결합에서 시작된다.

스피노자는 공감과 반감으로까지 이 논의를 적용한다.²⁵⁾ 이 역시 모든 공감과 반감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공감과 반감은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25)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원인도 없이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공감이나 반감에 의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E3P15S)

이는 우리가 가지는 공감과 반감의 구조를 뜯아보게 하는 계기로서 작동할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공된 장애인 캐릭터에게는 공감하면서 실존하는 이웃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공감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반감을 가질 때 이런 감정들의 발생은 사실상 우연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태도, 우리 공동체가 장애라는 주제와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과 그에 딸려 오는 식상한 감정에 대한 호소는 사실상 장애인 개인의 삶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인과적인 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나 태도 감정이 우연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연하게 어떤 것에나 공감할 수도 있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둘러싸인 외부사물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수한 사건들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두고 조절하거나 선택할 수 없으며, 우리가 겪는 경험의 인과연쇄를 빈틈없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가 인과관계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우연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신념들 자유롭게 내린 것이라고 믿는 판단들은 우연적이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개념들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감정들과 판단들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예고 없이 덮쳐온 우연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촉발된 자유롭고 이성적이라는 인간의 감정과 판단은 사실상 각자에게 가깝고 친숙한 것과의 연결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우연성이 상상에 관해 가지는 이중성은 이제까지 우리의 공감이나 반감의 발생이 우연적일 수 있는 만큼, 이전의 우리의 행위와 판단과는 무관하게-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연하게- 전에 공감하지 못한 사건과 대상에 열렬히 지지를 보낼 수도, 전에 무관심했던 사건과 대상에 적극적으로 함께 분노하며 연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 상상의 부분성

본 장의 1절에서 장애가 어떻게 재생산되며 또 어떻게 재해석 될 수 있는가를 이미지의 관성의 이중성을 근거로 살펴보았고, 2절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획득한 앎이 무차별적인 경험에 의해, 그리고 경험을 재료로 한 인식의 과정에서도 우연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하면서 우리는 상상이 부분적인 인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절에서는 상상이 왜 부분적인 인식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부분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들에 의해 변용을 겪는 방식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게 되어 있다.”(E2P16) 상상이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통한 인식일 때, 변용은 변용을 야기하는 외부 물체와 변용을 겪는 우리 신체의 만남이다. 정역학적 용어로 이 변용은 충돌과 흔적의 발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이 변용은 외부 사물과 우리 신체의 만남이자, 광의의 의미에서 관계맺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²⁶⁾

그런데 변용에 대한 관념에서 포함하는 외부 물체의 본성은 ‘인간 신체에 특정한 방식으로 변용된 한에서의’ 본성을 말한다. 동시에 변용에서 함축하는 인간 신체의 본성 역시 ‘인간 신체에 특정한 방식으로 변용된 한에서의’ 본성이다. 따라서 상상은 외부 물체와 인간 신체의 본성에 대한 조건적인, 따라서 ‘부분적인 인식’이다. 변용의 원인이 되는 외부 물체의 본성과 변용을 겪는 인간 신체의 본성을 모두 부분적으로만 함축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공통 질서에 따라 사물을 지각할 때마다 인간 정신은 자기 자신, 자신의 신체, 외부 물체에 대해 적합한 인식이 아니라 단지 혼동되고 단편적인(부분적인) 인식만을 갖게 된다.”(E2P29C, 괄호 안 표현은 필자가 첨가함) 신체의 변용을 통해 얻은 우리 신체에 대한 관념과 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이 각각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각각을 부적합하게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변용을 통한 인식, 다시 말해 경험을 경유해 알게 된 바가 사태의 일면에 불과하며 절대 사태 자체, 또는 사태의 본질을 전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이미 놓치고 있는 다른 무수한 면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계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구성하는 다른 원인들에 대한 상상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용을 통해 얻은 인식으로서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신체에 특정한 방식으로 변용되는 한에서의’ 외부 물체와 우리 신체의 본성은 우리 신체의 구성상태를 반영한다. “각자는 자신의 뇌의 구성에 따라 사물들을 판단해 왔다 …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상상의 변용들을 사물들로 간주해 왔다”(E1App)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떤 사물의 본성에 대해, 자신들이 그것에 의해 변용되는 방식에 따라 좋거나 나쁘고, 멀쩡하거나 썩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한다.”(같은 곳) 자신에게 유용한지 해로운지에 따라 각각이 정의와 부정의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유용함의 규칙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겪고 느낀 바가 마치 세상의 진리의 전체인 것처럼 여기는 세계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

상상은 신체 구성상태를 반영한다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개인들이 저마다 동일하게 상상한

26) 변용을 관계맺기로 표현하는 것이 스피노자적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여러 사물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관계를 개별 사물 또는 개체로 정의하기 때문에, 관계맺기는 존재의 발생에 대한 유의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변용을 외부 물체와 우리 신체 사이의 관계맺기라고 일컬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용을 겪은 우리 신체에 남은 흔적을 근거로 변용의 원인이 되는 사물의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을 기억하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계 이해에도 신체가 겪은 변용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용에 의한 영향은 변용을 시킨 물체에 대해 특정한-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인- 방식이겠지만 말이다.

다고 말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편 개념이 과연 보편인가를 의심할 수 있다. “각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사물들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E2P40S1) 따라서 인간이라는 보편개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경험을 자주 겪었는가, 자기 신체의 구성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인간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 범위, 자격 등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정의하는 근거로 ‘직립보행’ ‘이성 능력의 사용’ 등으로 설정한다면, 이는 그런 특성들이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자주 경험한 바와 그들의 신체 구성상태가 그러함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이미지가 다른 변용에 의해 대체되듯이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신체 구성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전의 정의는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다.

여기서 신체의 구성상태란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신체가 다른 물체와 관계 맺는 방식, 즉 한 인간의 삶의 양식 또는 실존 조건을 말한다. “각자는, 자신의 습성에 의해 사물의 이미지들이 신체 속에 특정 질서로 연쇄됨에 따라 하나의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옮겨 갈 것이다”(E2P18S) 스피노자는 “모래 위에 남겨진 말의 흔적”(같은 곳)에 대한 농부의 사유와 군인의 사유가 다르다고 말한다. 농부는 말과 작물을 생산하는 행위로 관계하고 있으며 말을 밭을 가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군인은 말을 전쟁과 훈련을 수행하는 행위로 관계하고 말을 기사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는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물에 대해 다른 변용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A는 인간 B와는 다른 삶을 살고 같은 공동체, 같은 시공간에서도 다른 경험을 겪는다면, 그리고 서로의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심지어는 아예 모른다면- 동일한 사물과 사태에 대해 인간 A와 B는 서로 다른 인식을 얻고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 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지각할-듣고 볼- 수 없다면, 개인들의 변용이 개별화되고 그 변용에 근거한 인식이 파편화될 것이다. 나아가 서로를 상반된 존재로 여기고 서로를 각자의 존재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 피하거나 파괴하려 들 것이다.

그럼에도 경험, 변용을 통한 인식에 주목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상이한 인간들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상이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으며, 하나의 동일한 인간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의해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다.”(E3P51) 1절에서 다루었듯이 변용이 외부 사물에 의한 일어나는 것으로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가지며, 2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변용의 내용이 구성되는데 있어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변용은 외부 원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변용될 수 있다. 비장애중심적인 사회가 지난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은 변용을 우리가 이해한 바라면, 각자가 변용된 바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변용될 수 있다.

IV. 결론

비장애중심적인 사회가 손상이 있는 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이들을 장애인으로 규정할 때, 이런 사회에서도 장애는 재해석될 수 있는가? 또한 사회적 장애모델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장애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위의 질문에 하나의 대답을 위해 우리는 스피노자의 상상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주목했다. 우선 상상은 신체의 변용, 즉 이미지에 대한 관념을 통해 구성되므로, 우리가 외부사물에 의한 변용을 통해 구성한 하나의 이미지 또는 관념은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경험을 겪기 전까지는 지속된다. 동시에 이런 이미지들이 본유적이거나 그 자체로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사물의 변용에 의해 다른 이미지로 수정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다른 충돌 없이는 기존의 운동이 지속되지만, 외부사물과의 만남에 의해서 사물의 운동상태가 결정된다는 점이 바로 이미지의 관성에 해당한다.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인식 역시 변용이자 이미지라고 할 때, 장애에 대한 우리의 변용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다른 경험을 하기 전까지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험을 한다면 그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변할 것이다. 장애 개념에 대한 변화, 즉 장애의 재해석은 장애가 이미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장되어 있다.

둘째로 우리가 검토한 것은 경험과 상상이 각각 가지고 있는 우연적인 성격이었다. 경험은 우리의 세계 이해를 변하게 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를 통제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점, 즉 우리는 무차별적인 경험을 겪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이 비장애중심주의적 사회라고 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상을 통한 우리의 인식 과정이 우연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세계 이해나 감정 역시도 부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감정을 연결하는 과정이나, 사물들 사이의 연상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단지 옆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우연히 동시에 작용했다는 이유로 등 우연적인 이유로 이 연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우리 사회가 구성한 장애라는 개념에 적용해 볼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장애라는 개념의 내용과 이를 장애라는 개념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우연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상의 부분성에 주목하면서 경험을 통한, 신체의 변용에 대한 인식은 항상 부분적이며, 우리가 상상을 통해 얻은 외부사물에 대한 인식은 외부사물에 대한 참된 본성을 담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검토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장애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에 불과하며, 장애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이러저러하게 이해하고 있는 장애라는 개념에는 장애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보다는 내가 어떤 조건에서 장애에 대해 경험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나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은 모두 다르며, 저마다의 인식은 각자의 삶의 형태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다. 상상이 부분적이라는 점에 근거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일 때, 사회 구성원 각각은 장애를 경험한다. 각자의 인식은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다른 경험에 노출된다면 인식의 내용이 바뀔 수 있고, (2) 이전의 인식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어떤 경험을 겪고 내린 장애에 대한 특정한 이해들은 우연적으로 근거없이 연합되었을 수 있다.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개념들을 지지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개념이 역사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참되기 때문이 아니라 대체되지 못하고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아무리 사회가 비장애중심적이고 개인의 이전의 경험에 의해 편견에 가득차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개인이 출현하는 사태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경험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달라서,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어느 누구도 신체 구성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들 사이에도 장애인들 사이에도 장애에 대한 인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을 통한 인식을 사태의 전체이자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신의 유용성의 규칙을 모두에게 통용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부분을 전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상 모두 공적인 문제이다.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사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질상 편견과 정념에 빠지기 쉬운 개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실수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각자의 상상에 매몰되고 쉬운대로 자신의 기질대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도록 사회는 다양한 경험을 겪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각자가 자신이 당연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시험받고 반박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우리가 만나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장애인이 완결된 소설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그리고 비장애인을 또 비장애중심적인 사회를 변용시키는 원인으로 수없이 나타날 때, 장애는 우리가 여태 상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 김은주. (2020). 스피노자와 여성: 여성 배제를 중심으로. 哲學研究, 0(129), 1-30.
- 안희제. (2022. 08. 19). “우영우가 침묵한 것,”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8>
- 장정연. (2018). 스피노자의 정서와 정신장애인의 정서. 철학·사상·문화, 0(26), 178-212.
- 장정연. (2021). 정신장애인의 변용과 스피노자의 정서와 이성. 철학·사상·문화, 0(36), 121-154.
- 전근배. (2021).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과 장애인의 ‘독립’의 문제 :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학, 6(2), 11-33.
- 최현경, 강진숙. (2022).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제작 활동과 정동 체험에 대한 사례 연구 : 들뢰즈와 과타리의 ‘정동’과 ‘양식-역설’의 사유를 중심으로. 韓國 言論學報, 66(1), 43-88.
- 최진. (2022).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통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의 정당화 가능성 탐색. 교육철학연구, 44(2), 161-184.
- Abrams, T. (2017). Braidotti, Spinoza and disability studies after the human.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30(5), 86-103.
- Colin Barnes, Michael Oliver and Len Barton. (2002).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김도현 역). 서울: 그린비.
- Priestley, M. (1998).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 Society, 13(1), 75-94.
- Shakespeare, T. (1996). Disability, identity and difference. Coline Barnes & Geof Mercer (ed), Exploring the divide, Leed: The Disability Press, 94-113.
- Shakespeare, T. (2006).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2, 197-204.
- Spinoza, B.(출간예정). 윤리학(박기순 역).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Abstract

Can Disability be Re-construed in an Ableist Society?: Reconsidering Disability through the Lens of Spinoza's Imagination.

Park Soul H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isability can be re-construed in an ableist society. According to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is not based on persons with impairments but rather it is constituted by society. When we stand on the side of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by criticizing society as ableist, then a problem confronts us. Is it possible to reframe the concept of disability on the basis of ableism? Further, when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imagines a society where disability disappears, what does it mean to re-construe disability?

Insofar as disability exists in our society, society at present is ableist. Ableist elements in our society stem from the past and influence members of our society. Because a society is phenomena of interactions within members of society, the concept of disability reflects how they understand and perceive disability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Hence, the meaning of disability can be socially re-construed by the same process: disability is created by a society insofar as perception relies on experience.

To prove this argument, this paper refers to Spinoza's concept of imagination. For Spinoza, imagination is "when the human Mind regards external bodies through the affections of its own body."(E2P26Cdem) Our experiences are the source of imagination,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Philosoph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our primary cognitive path, rather than what Spinoza refers to as ‘common notion’-rational thought- or intuitive knowledge. This paper focuses on ‘bilaterality’ of imagination and affection which can bring about a re-construing of disability. The points the research presents are as follows: (1) inertia of image, (2) contingency of imagination, and (3) unwholeness of imagination.

Rather than some researchers distinguishing between social and individual models of disability, each individual’s experience cannot be separated from something public and political. In Spinoza’s though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is hardly distinguishable, as each is made up of the other. Moreover, scrutiny of imagination reveals how bias arises and that there are no rational and logical grounds of universal and abstract concepts about disability and human, etc. at least on the level of imagination.

Consequently, re-construing disability starts from encountering others as the mutual cause of affections of their own bodies.

Keywords : Re-Construing Disability, Social Model of Disability, Spinoza, Imagination, Affection, Ableism